

공동체 소식



모든 성인 대축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대한 축제로 모든 성인의 공덕을 기리게 하셨으니,
성인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바라던 하느님의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소서.

11월 기도지향

- 서한석 시메온, 김수희 아네스 가정
안병환 발렌티노, 안현숙 크리스티나 가정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Values: 433, 210, 165/164, 436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이번주일, 다음주일, 시종 복사, 향 복사. Lists names like 정예찬, 정채린, 이원준, 차민서, 김태중, 김시연, 문문주, 박희영.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Lists names like 김주연, 김명은, 김태중, 김시연, 박재천, 박계숙.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Lists names like 김시연, 문문주, 신혜경, 최은미, 김말자, 박옥희.

헌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Lists names like 문문주, 박희영, 엘리사벳, 카타리나, 고영방, 이우영, 스테파노,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영성체, 헌금, 교무금. Values: 10/25, 62명, 325불, 1,000불. Includes note: 고영방, 김호원, 박동희, 정석원, 정수한 (총 5 세대)

신신미사 전례에 대한 안내

- 예수성심미사 : 11/06(금) 오전 10시, 미사 25분전 '십자가의 길'기도 시작.
성모성심미사 : 11/07(토) 오전 10시, 10시에 묵주기도와 함께하는 미사 시작.

10월 구역별 모임

- 1구역 : 11/(토) 저녁 7:00, 정석원 라파엘 택, 913-541-1614.
2구역 : 11/(금) 저녁 7:30 김대연 요셉 택, 812-272-4770.
3구역 : 11/(금) 저녁 7:00, 감영진 라파엘 택, 913-544-6393.

써머타임 해제 안내

- 다음 주일(11/1)부터 써머타임이 해제됩니다.
기도와 미사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11/14(토) 오전 11:30

모든 성인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르코린 4:18-

2015년 11월 1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뵈오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이들을 기억하는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언젠가 우리도 그분들의 전구에 힘입어 하느님을 끝없이 찬미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림 묵상

모든 성인의 축복

석굴암에 있는 한국 수도자의 모습에 가톨릭 성인들의 상징을 결합하였습니다. 이 성인상에는 지금도 세상 어느 귀퉁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하는 성인의 모습이 어려웠습니다. 문화를 초월한 성인의 원형을 그렸습니다. 성인들의 축복이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정미연 소화대례사

제 1 독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7,2-4,9-14 <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



이런 이야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이로다

○ 주님 것이로다 땅이며 그 안에 가득찬 것이 온 누리와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바다 위에 그 터전을 마련하시고 강물 위에 그 물을 굳히셨도다. ◎

○ 주님의 산으로 오를 이 누구인고 거룩한 그곳에 서 있을 이 누구인고 그 손은 깨끗하고 마음 정한이 헛군데에 정신을 아니 쓰는 이로다. ◎

○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갚음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 주님을 찾는 족속 야곱의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이로다. ◎

제 2 독서 :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3,1-3 <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2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실천하는 삶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겹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신약성경에서 ‘환난’은 많은 경우에 박해를 의미합니다. 박해 중에도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낸 이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린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는 것 역시 이들이 구원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한 묵시록 7장의 내용은 ‘선택받은 이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들이 십사만 사천 명이라고 밝히는 이 내용은 요즘 특히 신천지교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십사만 사천 명은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선택받은 이들은 하느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구약성경의 열두 지파와 신약성경의 열두 사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묵시록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박해 안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이들이 구원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 내용은 오늘 복음 말씀과도 잘 어울립니다. 마태오 복음은 오늘 진복팔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선언은 마음이 가난한 이들, 그리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복음에서는 종종 세상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과 하느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인간적인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생각은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라는 표현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세상을 향해 하느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향해 이웃을 사랑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재물의 가치가 모든 것보다 앞서는 요즘,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나 혼자만의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느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에 앞서 우리 안에서 먼저 실천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실천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를 조금씩 일깨우는 것이 신앙인들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 역시 이러한 삶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을 위해 더 노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모든 성인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입니다.

- 허규 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중풍병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삼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 호기심으로 몰려온 사람들까지 뒤엉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집 한가운데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 나라에 관해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중풍으로 누워있던 환자 한 사람이 친구 네명의 도움으로 문 앞에 도착합니다. 중풍 병자와 친구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2,1-4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집은 흙집 담에 부착된 옥외계단이 있어서 쉽게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고, 지붕은 대부분 나뭇가지 등으로 덮여 있어서 뜯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디. 예수님은 어렵게 다가온 중풍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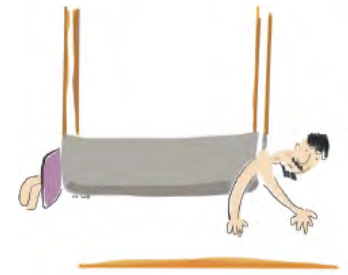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2,5-6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는 일반적

으로 병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죄를 용서한다는 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의 생각을 꿰뚫어보신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2,7-12

중풍 병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도우미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중풍 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육신이나 마음과 정신이 마비되어 무언가에 꽂혀 있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어떤 장애물 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글 어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이미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셨죠?

그런데 어쩡니까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디.

이미 마음에 선물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받을 상이 남아 있겠죠?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마태 5,12)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